

세계 도자기 엑스포 10일~10월 28일 이천·여주·광주 등지서

80개국 2천여점 도자기 감상

세계 도자기 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홀로 빛나는 미래,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경기도 이천·여주·광주 일대에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세계 각국의 독특한 도자문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도자기 엑스포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등 모두 15개의 기획전이 동시에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다.

이 전시를 위해 신석기시대의 토기, 이집트 황아리, 아프리카 원주민의 토기에서 최첨단 세라믹 도자 작품까지 모두 2200여점이 세계 80여개국에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 왔다. 이번 도자기엑스포 행사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주요 전시를 소개한다.

◎세계도자기명전(이천 세계도자기센터)은 동서양의 도자역사 1만년의 거대한 흐름을 체험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개되는데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의 도자 발달사를 비교하며 동양 도자의 지역적 특징은 물론 신석기 시대 토기부터 백자로 이행되는 양식과 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 서양부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서양도자 발달사를 조명하고 동서 도자교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고궁박물관, 프랑스 투브르박물관 등의 명품 340여점이 전시된다.

◎세계도자기비엔날레(이천 세계도자기센터)는 도자기에 대한 통념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전시다. 총 293점의 수장작이 전시되는데, 거대한 원통형의 조각작품 같은 대상 수장작을 비롯, 무게 500kg이 넘는 초대형 작품까지 현대 도자예술품들의 향방을 가능하게 한다.

◎조선도공후예전(광주 조선관악박물관)에는 심수관(家) 등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도공 후에 여섯 가문의 작품을 통해 일본에서 우리 도자기 문화가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보여준다. 40여년을 이어온 조선 도공의 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용기전(여주생활도자관) 대표적인 전통 생활용기로서 한국 특유의 서민적 정서를 드러내는 용기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장독대가 지닌 한국적 정경을 예술적으로 수용한 이 전시는 우리 장독 문화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세계도자디자인전(여주 생활도자관)은 국내 업체와 영국의 웨지우드, 헝가리의 헤렌드, 일본의 노리다케 등 해외 유명 생활도자기 업체의 최신 제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철단세라믹전(광주 행사장) 생활용품부터 첨단 과학분야의 신소재로서 공통신 및 우주항공 전자공학 바이오세라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세라믹의 놀라운 세계를 조명한다. 생활분야, 정보통신분야, 의료 보건 환경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예



◇청자투각 칠보문항로

너지 분야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흙이 지닌 미래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통 양식을 유지해 오고 있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원주민 부족들의 독특한 토기를 보여주는 '세계원주민 토기전' 우리 나라의 도자기만 모은 '한국전통도자전' '한국현대도자전', 미국 현대도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는 'NCECA(미국 도자교육협회)회전' 등과 백남준의 도자 비디오아트 작품, 도자기타임캡슐, 도자영사 라이브러리 등의 이벤트와 조형물도 놓치지 아까운 볼거리다.

이은자 기자 eeje@buddhaya.com



김흥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꿈인가 하면 꿈이 아니고 꿈이 아닌가 하면 꿈이 아닌 것 또한 아니니. 어이할로 증생이여. 꿈을 끈적 깨어나기 괴롭고 깨어난즉 꿈을 꾸기 괴롭고여.' 소설의 첫머리에 제시(題辭)로 붙여 있는 이 말처럼, 김성동의 '꿈'은 이광수의 같은 제목의 소설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광수의 소설은 또 삼국유사의 유명한 고사인 '조신몽(調信夢)'을 모티브로 하여 쓰여졌다.

신라 신문왕 때의 젊은 스님 조신은 강릉 태수 김흔 공의 딸에 반하여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낙산사의 관세음보살께 빌었다. 그 처녀에게는 이미 배필이 있었다. 자신의 처자를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관음보살 앞에서 깜박 잠든 사이, 꿈속에서 그 처녀가 나타나 둘은 함께 도망친다. 47년을 함께 살지만 결국 생활고에 지쳐 헤어지고 마는데, 그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다. 그때 조신이 깨달은 것은 <금강경> 사구계의 내용이었다. '은갖 유위의 법은 꿈 같고 그림자 같고 꼭두각시 같고 물거품 같으며 이슬방울 같고 또 번갯불 같으니 증생들의 살림살이 또한 이러한 것임을 잘 관찰하여라!一切有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김성동 '꿈' (4)

남녀문제도 소화하기 따라 도이룰 공부

구도의 길에서 마주치는 남녀간에 얽힌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신라 문무왕 때에 공덕과 엄정이 살았는데, 둘은 서로 사이좋은 친구로

지냈다. 공덕은 부인과 동침하지 않고 청산담 청산너로 살면서 정성껏 아미타불을 염하고 십육만사천을 실천하여 마침내 서방정토로 건너갔다. 엄정은 친구가 떠난 후 친구의 부인에게 함께 살고 싶어 승낙을 받았다. 밤에 자면서 부인을 안으로 했더니, 부인은 공덕과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룻밤도 잠자리뿐 같이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핀잔을 준다. 크게 뉘우친 엄정은 원효대사를 찾아가 정관법(淨觀法)을 지도받고 열심히 수행하여 역시 극락에 가게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성덕왕 때에 노닐부덕과 달달박박은 백악산 무등굴에 들어가 암자를 짓고 수도를 하였다. 어느 날 젊은 색사가 박박의 암자에 찾아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박박은 매정히 거절하고 처녀를 멀리 쫓아보냈다. 그녀가 이번에는 부덕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부덕은 여인을 따듯이 맞이한다. 설상가상으로 여인이 해산을 하게되자, 부덕은 물을 끓여 목욕시킨다. 목욕이 끝나자 물이 금빛으로 변하는데, 그녀는 부덕에게 '우리 스님도 여기서 목욕하시라!'고 권한다. 부덕은 그 물에 목욕하고, 도를 성취하여 마력 불로 화현한다. 그 처녀는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박박은 친구가 계율을 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놀려주려고 찾아가니 마력부처님이 환한 빛을 내뿜고 계셨다. 부덕은 마력불이 일러주는 대로, 똥에 남은 물에 목욕을 하고 친구를 따라 무량수부처님이 된다.

이런 설화들은, 번뇌가 곧 보린 것처럼, 남녀문제도 소화하기에 따라 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동은 이 경계가 닦혔을 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쳐나갔다. 경계가 닦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계속)

▲문학평론가

한여름 밤 문화 향연

만해축전

백담사, 5~8일

만해스님의 사상과 문화혼을 기리기 위한 2001년 만해축전이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열린다.

이번 만해축전에는 '죽전사인학교'를 비롯, 만해스님의 독립사상과 불교의 독립운동을 되짚어보는 '독립사상 심포지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아버 문명과 정체성의 위기를 주제로 '세계한민족작가연합 심포지엄', 남북문화의 이상과 현실을 살펴보는 '남북문화 심포지엄', 한시를 통해 본 만해의 자유와 평화사상을 주제로 '만해학 심포지엄'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제5회 만해상 시상식이 거행되며,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만해백 일장과 만해시 암송대회, 참가자들의 자작시 낭송,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한여름밤의 문화향연 '불광산곡의 메아리와 만해의 별과 물소리와 함께'가 강원작가회의의 주관으로 펼쳐진다. 또 축전기간 동안 '갈매 중공 선회전', '지혜스님 초대전', '무주스님 선회전' 등이 열린다. 033462-6969 이은자 기자

문화소식

충연구소 김정환실장이 '근종과 벌레들, 조화로운 집사', 17일 이기섭 경희고 교사가 '산새와 짐승들의 생태계', 23일 이학영 한국자생어종연구회장이 '계곡의 물소리와 만물고기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02587-8997

한국 문화이미지 기획전

국립민속박물관은 9월 17일까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기념 '한국의 문화이미지 기획전'을 연다. 한복, 김치, 탈춤, 한글, 불국사와 석굴

암 등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10가지의 이미지를 4개의 주제로 분류해, 우리문화의 특징을 국내외에 알린다.

'한국의 맛을 거리' 부문에서는 김치와 불고기, 인삼 등 우리 음식과 특산물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한국의 미' 부문에서는 설악산의 경치와 한복의 선과 색을 선보인다. '한국의 기(技)' 편에서는 한글, 불국사와 석굴암, 태권도 등 우리의 특징적이고 빼어난 기예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전시된다. '한국의 예(藝)' 편에서는 탈춤, 종묘제례악, 백남준 등 세계에서 인정받은 우리 예술인과 우리 예술문화에 관한 자료와 유물들이 소개된다. 02720-3138

화폭에 담은 동자승

원성 스님 새회집 '겨울'

원성 스님은 동자승을 주제로 '겨울'을 주제로 한 회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동승의 화가 원성스님이 펴낸 새 회집 <겨울>의 이미지다.

때로 차를 마시며, 때로는 한적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기다가 홀딱 만행을 떠나는 다양한 동자승의 생활과 고민을 담은 신작 130여점이 스님의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스님은 오는 9월 1일~30일 '만해문화사 초청 타이포그래피 전시회, 10월 30일 '삼학사 시립미술관 초청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환경강좌 '인사동 생명학교'

'환경과 인간', '미술'이 만나는 이색 환경강좌가 열린다. 불교환경교육원은 9일부터 23일까지 가나아트센터와 공동으로 '솔바람 세소리와 함께하는 한여름 인사동 생명학교'를 연다.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센터에서 매주 목,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이번 생명학교는 환경운동과 생태에 관심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9일 유창희 생태연구소장 마담 소장이 '술과 생명 그 오묘한 조화의 세계'를, 10일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꽃과 들꽃의 속삭임', 16일 고려군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갖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262cm(길이)

수분흡수와 발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주머니 피관주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 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